



심판의 이중성

오늘은 심판의 이중성에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3 :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모든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으로, 신앙과 불신앙에 의해 영생을 받을 자와 못받을 자가 살았을 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3:18 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 :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둘째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서 받을 심판으로, 살았을 때 율법에 대한 범과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2 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 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20 :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 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의 심판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이 것이 심판의 이중성 입니다. 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믿음에 의해 영생을 받고, 마지막 때 백보좌 심판 때 모든 자가 자기의 행한 바에 의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살았을 때 행해지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3 :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에 살 때 행해지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의 기준을 율법의 준수 여부에 맞춥니다. 영생을 결정하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벌어지는 심판은 **율법에 의한 심판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나 아니냐 하는 **믿음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영생을 받을 것이냐 못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갈리는 것이고, 율법에 의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형벌이 주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20:12 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 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은 것을 믿으므로 형벌에서 면제되어, 이 세상에 살 때 행한 자기의 선행을 따라 영광으로 나가게 되고, 불신자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면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사망의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원죄의 용서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미 대속적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백보좌 심판때 형벌에서 면제됩니다. 갈라디아서 3 : 13 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적 형벌과 대리적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어 형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을 양심에 의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합당치 못한 것은, 양심은 언제나 율법과 함께 작동합니다.

로마서 2 :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로마서 2 :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언제나 율법과 함께 작동합니다. 양심은 믿음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 믿음에 의한 심판이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작동하는 양심은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2.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심판의 개념

요한복음 3 :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John 3:18-21 (KJV)

¹⁸ He that believeth o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th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이 구절에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과 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당시에, 그 사람들의 앞에서 살아서 숨쉬며 말씀하고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심판의 개념을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심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심판의 개념은 율법에 의한 심판의 개념입니다. 최종적이며 일회적인 율법에 의한
심판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최종적이며 일회적인 율법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 때 백보좌 앞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심판은 일회적이며
최종적인 백보좌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교하여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이중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현세에서 불신앙에 대해 심판을 받은 것이며, 그런 자들이 율법에 의해 백보좌 심판 때에 형벌로 나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룬 바가 되어, 백보좌 심판 때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신천신지를 상속받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좌 심판 때에 여전히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살았을 때 가졌던** 믿음이 됩니다. 율법은 의의 기준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형벌과 포상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부터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하는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살았일 때에도 죽고 나서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결정은, 그의 율법에 대한 관계에 기초한다¹고 하는 신학적 전제는 튼튼치 못한 것이 됩니다. 사람의 구원여부는 율법에 대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요한복음 5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되는 것은, 율법에 대한 관계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들에 있어서 백보좌 심판은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영광에 참여하는 포상의 기회가 될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 : 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 :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린도전서 15 : 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고린도전서 15 :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¹ 박형룡 구원론(5 권) p. 32 칭의의 위치

3.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 :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적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에 참여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차지 합니다.

에베소서 2 : 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 :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에베소서 2 : 4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 :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 :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은혜에 의해 생명을 얻은 자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지위입니다. 우리의 영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지막 때에 있을 율법에 의한 심판은,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신앙과 불신앙의 심판에 대한
연속입니다.

요한복음 5 :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²⁹ And shall come forth; they that have done good, unto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they that
have done evil, unto the resurrection of damnation.

이 구절은 선행과 악행이 생명과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형벌과 포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4. 불신앙은 죄이다.

여태까지 죄의 정의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만 배워 왔습니다. 불순종도 죄이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위에 있는 상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위에 있는 상위의 법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3 :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의 언약을, 430년 후에 온 모세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믿음의 언약을 무효화 하지 못한다고 천명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믿음의 법이 행위의 법인 모세의 율법보다 상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죄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어 왔는가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10 정탐군의 이야기를 보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민수기 13 :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민수기 13 :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민수기 13 : 33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이 지은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불신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따르는 반석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지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완전한 그 본체를 드러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 : 1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고린도전서 10 :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 : 3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고린도전서 10 :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증거하시는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신앙이 죄임을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 :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 :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이 하시는 이 증거는 최종적이며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길이 전혀 없이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